

7. 『제주도』지(誌) 영인(影印)의 의미³⁵⁾

1960~1970년대 제주문화 문헌 집대성
멸실 위기 『제주도』 영구 보존 계기

과거에 필자가 치렀던 일 가운데 적잖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하나가 『제주도』지의 발행이었다.

『제주도』지의 탄생 이전부터 호된 산통을 치르기도 했지만 그 뒤로도 많은 시련을 치른 잡지였다. 그러다가 한번은 아예 숨통이 끊겨 없어졌다가 다시 복간되어 살아난 잡지이기도 했다. 그런 때마다 그 소용돌이 어디엔가 필자가 말려들기도 했다. 이제 창간 만 40년이 되었

35) 『한라일보』(삼각봉), 2001. 01. 31 (수), 논설고문.

지만 지금도 필자와는 끊어버릴 수 없는 묘한 인연이 흐르고 있다.

『제주도』는 필자에게 또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준 잡지이기도 했다. 과거에 필자가 알았던 도외 인사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잡지를 통하여 맺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대체로 각각 그 방면의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대가들이요, 중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거의 고인들이 되었지만 지금도 원로로 건재한 분들도 있다.

이 잡지에 등장한 필진들이 그러했듯이 이 잡지를 구성한 내용도 제주도와 관련한 내용인면서 전국의 최고 수준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의 권위 있는 주요 논문 목록을 발표하고 있던 국회도서관이 지방지로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지에 실린 논문 목록을 꼬박꼬박 발표하고 있었다.

1960~1970년대에 『제주도』지는 분명히 문인들을 비롯하여 학계·문화계의 관심을 모았던 잡지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문단이나 학계의 중진들 가운데는 중앙의 이름 있는 잡지에는 청탁을 사절하면서도 『제주도』지에는 흔쾌히 집필해 주는 필자들이 적지 않았다.

1970년 여름 과리대학 동양학연구소장이었던 디렉터 박사가 제주도 청으로 찾아왔다. 정부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기회에 꼭 『제주도』지 편집자를 만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과리대학에 와 있는 한국인 교수를 통하여 『제주도』를 보고 있으며 귀중한 많은 자료들을 얻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잡지를 우송해 주기를 희망했다. 당시 필자는 국내외 저명한 문화계 인사들에게 『제주도』를 우송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이를 응락 했다. 그러나 그 뒤 필자는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필자의 생각과는 달리 이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제주도』지는 비단 과리대학 만이 아니었다. 동경대학, 하와이대학 등이 모두 그 같은 주문을 해왔다. 그러나 잡지를 통한 이 같은 교환은 뒤에 알게 되었지만 필자가 떠나고 나서 모두 그 무렵에 두절되고 말았다.

『제주도』지와 의 관계는 필자가 편집자의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이어졌다. 잡지의 구독과 우송, 정보의 교환, 자료의 요청 등 여러 가지가 계속 필자에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같은 주문은 점차 사라져 갔지만 지금도 어쩌다가 그 잡지를 구해 달라, 그 논문을 복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

근자에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일은 이 잡지의 멸실이었고 복사마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일이었다. 어떤 논문이 실린 잡지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백방으로 알아보아도 얻을 수 없거나 복사를 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퇴색해버린 사실이다. 1961년 창간 때부터 1980년 폐간 때까지 사용했던 용지가 모두 재생쟁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렇게 변색되어 복사를 해도 거의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제주문화사(대표 홍성호)가 이 잡지의 영인 작업에 착수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된다. 엄청난 출혈이 내다보이는 사업인데 그를 무릅쓰고 착수한 것은 한마디로 강인한 문화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할 것이다.

제주문화사의 계획을 보면 『제주도』지 창간호(1961년 12월)부터 1980년 6월 폐간될 때까지 격월로 간행된 총 77권을 전질 30권으로 영인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문화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이 작업을 추진해왔고 올해부터는 책이 되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작업이 완성되면 문화 재창출의 시기였던 1960~1970년대에 발표되었던 권위 있는 기록문헌들이 집대성되어 영구히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멸실 위기에 놓였던 『제주도』지가 이제 영인되어 나오게 된 것은 참으로 제주문화의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으며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